| 현불 논단 |

오늘을 설날처럼 산다면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예로부터 설은 '삼가는 날'
지난날 반성 · 새로운 삶 다짐
그래서 설날은 '설렘'의 날이다

현재 설날, 이벤트만 난무해
신년 계획, 잘 지키고 있는가
설맞아 재시작 결심 많이 해

현재가 바로 출발의 원점이다
지금 오늘이 바로 설날 아닌가
현재를 '설렘의 설날'처럼 살길

기해년 '설날'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설날'은 그야말로 '설렘'의 날이었다. 설날은 온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새해의 첫 출발을 기리는 축제였다.

설날은 '삼가는 날(愼日)'이라 한다. 지난해의 불행과 잘못은 몽땅 섣달 그믐날 밤의 화톳불에 날려 보내고 설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엄숙한 날이다.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단정하게 갈아입고 새 음식으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집안과 마을의 어른들에게 세배로 인사드리며 새해의 새 삶을 다짐한다. 새해의 거룩함 속에서 즐거움이 따르는 축제가 같이 했다. 설날은 거룩한 축제의 날이었고 환희의 날이었다. 불교 신자들은 사찰을 찾아 부처님 앞에 조상을 기리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새 삶을 다짐했다. 그래서 설날은 '설렘'의 날이다.

그런데 지금의 설날은 설렘은 사라지고 이벤트만 난무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태양력이 공식화됨에 따라 양력 설날이 등장했다. 신정이 설날이 되었고 우리의 전통적인 설날은 '민속의 날'이라는 민망한 이름을 가지기도 했다.

1989년 음력 정월 첫 날이 설날로 다시 자리 잡았다. 이제 양력의 1월 1일은 그냥 새해의 첫 날인 신정이 되었고, 음력의 첫 날은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설날을 전후한 3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현대과학에 의하면 시간은 오직 빛으로만 측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태양과 달의 운행을 보고 시간을 측정하여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과 함께 산다. 달력이 일상생활의 나침판이다.

나의 청소년 시절이 새삼 기억난다. 1월 1일 신정이 되면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일기장을 사기도 한다. 며칠 못가 무너지면 구정, 즉 설날까지 유예하다가 설날에 또 큰 결심을 한다.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삼일절을 재출발의 날로 정하고 미룬다. 생일도 중요한 새 출발의 날이 된다. 재출발의 단위는 주간단위로 단축되어 월요일이 되기도 하였다. 마치 바위를 굴리며 산을 오르다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이런 경험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공유하지 않을까한다.

붓다의 무기(無記)설법이 생각난다. 붓다의 가르침은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 숨 쉬는 것이다. 세계가 영원한지,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어떤지, 내생은 있는지 없는지의 등 이론적 호기심에는 침묵하면서 지금 여기서 독화살을 맞은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와 연속된 현재이고, 미래로 연속될 현재이다. 현재는 스스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미 없는 과거와 아직 없는 미래를 존재로 전환하고 그 존재를 서로 연결한다.

그 중심에 깨어 있는 의식인 '나'가 있다. 나는 시간의 주체다. 현재는 미래를 기획하고 과거를 새롭게 만든다.

현재야말로 바로 출발의 원점이다. 그러니 바로 지금 오늘이 설날이 아닌가? 바로 지금 현재를 설렘을 가지고 설날처럼 지낸다면 우리 모두 행복할 것이다. 설날의 설렘을 노래한 안도현 시인의 '닭이 울어 해는 뜬다'의 시구로 글을 마감한다.

저 먼 동해 수평선이 아니라 일출봉이 아니라/ 냉수사발 속에 뜨는 해를 보자/ 첫닭이 우는 소리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울음소리 한번 내질러 보자



기자칼럼
윤호섭 기자

조계사 템플스테이 1등 비결은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의 템플스테이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서울 명소로 꼽히고 있다. 중국 최대 여행정보 플랫폼인 '마펑워' 조사에서다. 마펑워는 서울시에서 개별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소개용 콘텐츠 제작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10대 명소를 선정, 짤막한 소개 영상을 제작해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대 명소는 △조계사 템플스테이 △명동 닭한마리 식당 △명동 난타공연장 △신세계면세점 △K-Pop 댄스 체험 △서울스카이 △메이필드호텔 △영등포 포장마차 △OGN e-스타디움 △MBC월드 테마파크(조회수 순)다. 명소를 소개하는 모든 영상에는 배우 천린(陳淋)이 직접 체험하고 관광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중에서 조계사 템플스테이는 1월 29일 기준 조회수 6만9720회로 2위인 닭한마리 식당(4만4998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 조회수가 직접적인 관광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체험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계사 템플스테이 소개 영상에서 천린은 조계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공양간에서 식사를 마친 뒤 연등 만들기와 명상 등을 체험하며 소감을 전한다. 천린은 템플스테이를 한국 예능프로그램에서 처음 알게 됐다는 말과 함께 "어렵지 않은 체험으로 집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계사 템플스테이는 지금처럼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지 못했다. 국내에서 전국 어디서나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고, 굳이 도심 속 조계사를 찾아가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만큼 독특한 매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계사 템플스테이가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건 現주지인 지현 스님의 부임 이후부터다.

지현 스님은 봉화 청량사에서 다양한 포교방편으로 도량을 일군 경험을 앞세워 템플스테이를 가꿔나갔다. 종로를 찾아온 외국인들과 늦은 저녁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문화가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 '달빛 조계사 수요음악회' 등을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위해 지현 스님은 밤을 새워가며 직접 경내 조명각도를 맞추기도 했다.

해가 진 뒤 컴컴해진 종로를 사찰이 환히 밝히자 인근 호텔에 묵던 외국인들은 거리로 나와 사찰로 향했다. 사찰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다는 아일랜드인, 아들과 함께 좋은 체험을 했다는 스웨덴인, 동남아시아 사찰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는 베트남인까지…. 종로를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들은 조계사를 쉬이 지나치지 않았다.

마펑워가 선정한 새로운 서울 10대 명소에서 조계사 템플스테이가 1위를 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담겨있다. 단순히 도심 속에 사찰이 있다거나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결과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뒷이야기도 있다. 서울시가 마펑워에 명소 선정 시 조계사 템플스테이를 넣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또한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종교가 위기라는 시대, 불교도 비껴갈 순 없다. 하지만 사찰이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대중이 바라보는 불교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

社 說

미래포교 준비는 조계사처럼

서울 조계사가 어린이집과 청년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한국불교 미래의 동량을 키워낸다는 신년 계획을 1월 29일 발표했다. 조계사는 2016년 조계사 인근 을유문화사를 인수했다. 당시 을유문화사 건물의 용처를 두고 교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놀랍게도 조계사의 결정은 어린이집이었다. 사실 사찰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흥천사를 비롯해 몇군데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산중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함께 기도 중심의 사찰문화가 함께 겹쳐진 결과다. 고연령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사찰 내 행사가 많다보니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어린이법회 정도만 진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올해 8월이면 개원하는 조계사 어린이집의 경우 사찰이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춰 움직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3월 개원하는 조계사 청년센터도 마찬가지다. 청년법회가 있는 곳도 드물지만, 사찰 청년회가 제대로 사무실과 수행공간,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는 사찰은 사실상 전무하다. 조계사는 조계사 인근 건물을 매입해 1층은 올해 진행되는 주민자치센터로, 2층부터는 청년회 사무실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세대별 포교, 특히 조직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제 한국불교는 변화해야 한다. 기도를 위한 전각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찰을 사랑방처럼 쉽게 찾아 함께 사찰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바로 한국불교의 초석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3.1운동 100년, '평화'로 장엄하자

2019년 기해년 상반기 한국사회의 최대 기념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이다. 이미 정부부터 사회 각계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불교계 역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를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은 오는 2월 28일 불교평론과 함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3월 1일 당일 정부 공식행사에 앞서 조계사서 기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를 비롯한 한국사회 주요종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1000여 곳이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도 오는 3월 1일 정오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종교 · 시민사회단체들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1월 29일 열렸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오롯이 개최되는 범국민대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3.1운동 100년 선언문'이 선포되기 때문이다. 100년 전 독립선언문이 민족의 자주와 식민 해방을 외쳤다면 지금은 "한반도를 영구한 평화지대"를 선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실 3.1운동은 자주 독립선언이자 모든 존재의 평화와 번영, 평등을 이야기한 인권선언이기도 했다. 또한 3.1운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었다. 3.1운동으로 인해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당시 기안된 많은 것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바탕이 됐다.

100년을 맞은 3.1운동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뭇 생명들의 자주와 독립을 통한 '평화'라는 운동의 가치를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3.1운동을 바르게 기억하는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강사
• 주 소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영오길 151-31
• 주 지 : 정래 (속명 : 강동만)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